

1문제만 틀려도 2등급·3등급 ... 고3 교실은 지금 '멘붕'

2014 수능 대혼란

① 난이도 조절 실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고3 교실이 '멘붕'(정신적 충격) 상태다.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처음 도입한 수준별 수능이 오히려 출제 난도를 높이고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몰고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정부가 우릴 골탕 먹인 것'이라며 분노하고, 교사들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로얄 살루트' 수능=이번 수능을 놓고 고3 교실에선 '로얄 살루트'가 회자되고 있다. 과목마다 초고난

도 문제가 2~3문항 출제됐고, 이를 해결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로얄로 인정하며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초고난도 문제에서 상위권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의미다.

이는 출제기관이 지난 2년간 유지했던 '만점 1%의 쉬운 수능' 기초를 포기하면서 예고됐다.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난도 문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쉬운 수능'에서 '어려운 수능'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이 지난 3년간 체득한 수능 준비가 엉망이 됐

초고난도 문제 과목당 2~3개 '혼돈'

가채점 분석 합격선 예측도 뒤죽박죽

다는 것이다. 수험생 박모 군은 "수능은 지난 3년간 공들여 기른 수확"이라며 "2년간 쉽게 출제하다 정작 실전에서 어렵게 내면 어떡하란 말인가. 우릴 골탕 먹인 것"이라고 분노했다.

수준별 수능도 실패했다. 쉽다고 생각한 수학A형은 어렵게 출제됐고, 어렵다고 한 영어 B형은 더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임성호 하남교육대표는 "출제 당국의 무책임과 수준

별 수능 도입에 따른 예측 불허의 상황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가채점 분석 뒤죽박죽=수능이 어려웠던 데다 처음 실시된 수준별 수능의 영향으로 대입 정시 합격선 예측도 혼란을 빚고 있다.

입시업체들이 문과 최상위 학과로 전망하는 서울대 경영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원점수 기준 393점(전학사)~396점(이투스철학)으로 엇갈렸

다. 하지만, 광주지역 고교 진학부장을로 구성된 광주시진학부장협의회가 내놓은 합격선은 이보다 훨씬 높은 398점을 제시했다. 무려 5점 차가 난다.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대 경영대학 398점은 지나치게 안정적"이라며 "합격 안정권 제시는 임시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합격선 예측의 편차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학부모 정모씨는 "작년에 큰 아이가 수능을 치러봐서 이번에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험이

어려웠던데다 A·B형으로 나뉘져 더 복잡해 학교 선생님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해 하더라"고 말했다. 학부모 조모씨는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 예견됐다면 시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대로 시행한 교육부는 수험생 66만명과 학부모 100만명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고3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김모 교사는 "수준별 수능 탓에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들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27일 정확한 수능 점수를 확인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원침 (9015)



도청 사무관 사무실서 추락

11일 오후 1시 43분께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8층에서 배모(54) 사무관이 6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배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척추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배씨는 최근 행정사무감사·국감자료 준비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광록기자 kroh@

40대 男 성추행범 몰아 협박·돈 뜯어

○4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일당이 경찰서 행.

○11일 광주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0)씨와 정모(16)군 등 4명은 지난 3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정씨의 집에 침입해 "A(여·20)씨를 성추행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폭행한 후 59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것.

○정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말을 걸었을 뿐, 이렇다 할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이들의 협박에 집에 있던 TV까지 팔아 돈을 마련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고.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정시 12만7624명 모집 ... 전체 33.7%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보다 7000여명 줄어든 12만7624명을 뽑는다. 다음달 19일부터 원서를 받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관련기사 17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3.7%인 12만762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7653명 줄어든 수치다. 수시모집 인원 증가와 대학 자체 정원 감축 등에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는 전남대

1857명, 조선대 1755명, 순천대 719명, 목포대 470명, 광주대 427명, 동신대 323명, 호남대 243명, 광주교대 165명, 광주과학기술원 20명 등을 뽑는다.

원서 접수기간은 가·나·가나 군은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다·가다·나다·가나다 군은 20일부터 24일까지 각각 5일간이다. 대학별 전형기간은 '가'군은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같은 달 14일부터, '다'군은 같은 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5일까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능 시험장 차량 사고 해당 교사 처벌 못한다

특례법상 공소권 없어

2014 대입 수능 시험일인 지난 7일 시험장 입구에서 감독관의 차량에 수험생과 응원 학생, 교사가 다친 사고 <광주일보 11월8일 6면>와 관련, 해당 교사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시부경찰에 따르면 사고

를 낸 수능 감독관 함모(31)씨는 발생 지점이 학교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개 항목'에 해당하지도 않고, 함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바람난 아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여수해경, 40대 男 구속

여수해양경찰은 11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밤 9시30분께 여수시 교동 여객선 터미널 인근 부둣가에서 아내 장모(여·47)씨를 높이 3m 아래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다. 선원인 박씨는 지난 2010년 장씨와 결혼한 후 남자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목포대 페스티벌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목포대학교 페스티벌'이 열렸다. 13일까지 '신 해양시대의 빛이 되다. 입학에서 취업·창업까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기업 채용 설명회, 목포대 가족회사와 연계한 취업·창업 박람회도 함께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사 끝나니 ... 논에서 '투전 도박'

경찰, 영암서 60명 검거 ... 주범·자금책 등은 놓쳐

농지에 투전도박장을 설치하고 고액의 투전 도박을 한 일당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 검거 과정에서 도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심장마비 증상으로 숨지는가 하면, 투전도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40분께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한

농지에서 한판당 500만~1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전 도박을 벌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애초 경찰은 이날 투전 도박이 해남군 산이면 농지에서 벌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경찰관 150명을 급파

하려고 했으나 투전 도박장소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단

속 장소를 영암으로 옮겼다.

경찰은 장소가 급하게 변경되면서 주변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이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검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현장에서 투전 도박에 참여했던 100여명 중 주모(53)씨 등 59명을 검거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경찰은 또 150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 범인 검거에 나섰지만 장소 변경에 따른 사전 지형 파악이 이뤄지

지 못하면서 정작 도박을 주도했던 주범·자금책 등을 검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붙잡힌 최모(61)씨는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최씨는 심장질환과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씨 등 59명을 도박장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투전 22마리와 판돈 41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숨진 최씨의 명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단위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학과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7	5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과	4	5	
	실용음악학과	-	5	
총계		31	39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전형일: 2013. 11. 21(목)

전형일: 2014. 1. 3(금)

특별전형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원유이 있는 대학 · 원유를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

www.kwangshin.ac.kr

CJ

엘로비전

hello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디지털tv

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인터넷

국내 최고 기가бит 스피드 초광속 인터넷 방송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전화

평등권 그대로, 요금은 절반! 저렴한 인터넷 전화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3년 약정 필수! 가입/이탈시, 월별요금의 30%를 가입 시

2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속속 골라보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 격
골프/스포츠팩	골프중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AT GEO ADVENTURE, Discovery	~3,000원 ~ 2,000원(월간가) (VAT 포함 3,3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S	~3,000원 ~ 2,000원(월간가) (VAT 포함 3,3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 2,000원(월간가) (VAT 포함 3,3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irang	~3,000원 ~ 2,000원(월간가) (VAT 포함 3,300원)

※가입시에는 지령에 따라 주요 채널 10개정도 추가 채널이 존재합니다.

가입문의 1588-3450

www.cjhellotv.com